

목포시 세계 최초 모듈형 해상실증선박 띄웠다

수소·배터리·하이브리드·암모니아 엔진 한번에 시험·실증 연료 안전성·성능 지원...친환경선박 기술개발·상용화 가속

목포시가 친환경선박 미래기술 선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목포시는 지난 31일 선박의 다양한 친환경 연료 시스템을 시험·실증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모듈형 해상실증선박(K-GTB)의 진수식을 삼진산단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진수식은 새로 만든 선박을 선대나 도크에서 처음으로 물에 띄우는 행사로, 작년 9월 용골거치식 이후 약 1년여만에 선박 건조가 완료되었음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되는 친환경 연료 실증선박 개발은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주관 하에, (주)KTE, (주)동성선박설계, (주)리영에스엔디 등 민간기업과 전라남도, 목포시가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해 개발하고, 건조는 목포시 소재 기업인 (주)한국메이드가 담당했다.

친환경연료 추진시스템을 개발하고 상용화하기 위해서는 실증에 필요한 추진기관별 선박을 각각 건조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된다.

하지만 개발중인 해상 실증선박은 한 번에 수소, 배터리, 하이브리드, 암모니아 엔진 등 다양한

친환경 선박 추진기관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해상에서 시험하고 운용실적(Track Record) 확보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친환경선박 기술개발과 상용화를 한층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건조된 실증선박은 다양한 친환경연료 추진기관에 대한 안전성과 성능평가 지원이 가능한 선박으로 2600톤(길이 82.6m, 폭 18m) 규모이며, 추진·제어시스템 탑재, 한국선급의 검사 및 시험운항 등을 거쳐 친환경 선박 기자재와 대체연료의 실증을 본격 지원할 계획이다.

목포시는 급변하는 조선·해운산업 패러다임에 맞춰 선박배출 온실가스 규제 대응과 해양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남향을 중심으로 세계적 수준의 '친환경선박 연구·실증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있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본 실증 선박 건조를 통해 친환경 대체연료 기술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시장을 선점하는데 우위를 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국가와 지역에 의미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박홍률 목포시장이 지난 31일 세계 최초의 모듈형 해상실증선박(K-GTB) 진수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완도군, 한인경제인대회서 1000만 달러 수출협약



신우철(왼쪽) 완도군수가 완도 하나물산, 이탈리아 업체(MILLETEK)와 수산물 수출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완도군이 지난달 27일부터 6일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제28차 세계한인경제인대회'에 참가해 해양치유산업과 수산물 우수성을 알렸다고 3일 밝혔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세계 한상, 현지 바이어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치유의 섬, 완도'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완도군 수산물 수출 업체인 해정정, 하나물산, 완도해양여조합법인, 완도다 어업회사법인 등은 수출박람회장에서 밥에 넣는 톳과 전복 차우더, 전복 꼬치 등을 선보였다. 수출 상담에서 미국, 독일, 이탈리아, 루마니아, 중국, 대만 등 바이어와 14건, 1080만 달러의 수출 협약을 체결했다.

세계한인무역협회는 1981년 설립돼 71개국에 151개 지회를 두고 있는 재외동포 최대 경제 단체로 3만 5000여명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세계한인경제인대회는 국내외 기업인, 바이어, 재외동포 등을 대상으로 세미나와 콘퍼런스를 열고 홍보관을 운영하는 국제적인 비즈니스 행사로 올해는 3000여 명이 참가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진도 '곰창감' 위판 시작 초기 위판가격 지난해보다 30% 높아

진도 청정바다에서 명품 햇김의 생산이 시작됐다.

진도군은 지난 31일부터 의신면 수품위판장에서 물김(곰창감) 위판이 시작됐다고 3일 밝혔다.

올 첫 위판은 지난 9월까지 바다의 수온이 높게 유지되면서 김 작황이 좋지 않아 전년보다 5일 늦게 시작됐다.

위판가는 120kg 기준 포대당 46만8000원~72만 7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30%가량 높게 형성됐다.

위판량이 적어 위판가가 높게 형성됐으나 10월 중순부터 수온과 영양염 수치가 점차 회복되고 있어 11월부터는 생산량이 정상 범위에 도달할 것으로 진도군은 전망했다.

진도군은 김 공급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을 통해 50억원의 사업비를 추가 편성하고, 친환경 부표, 김 활성 처리제 등 김 양식 관련 27종의 사업에 15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고품질의 김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국 1위, 김 생산지'의 위상을 지킬 수 있도록 품질 향상과 생산량 증가를 위해 앞으로도 아낌없는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신안군 섬 44곳서 소사나무 자생...“전체 면적 274ha”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우이도 '명품 숲' 등 보존 방안 제안

신안의 섬 44개소에서 소사나무가 자생하고 있으며, 전체 면적만도 274ha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안군은 우이도에 소사나무를 포함한 명품 숲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안군은 최근 신안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박우량 군수를 비롯해 김하승 나주대학교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최대 군락지를 형성하고 있는 '신안 소사나무 분포 실태조사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도서와 해안지대에 분포하는 소사나무 자원 보전과 명품화 및 생태관광 자원화를 위해 추진됐으며, 신안군의 소사나무 군락지 현황 조사와 장기적인 생태 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는 자료로 활용된다.

연구 결과 우이도 19곳과 특정도서 9곳, 무인도 16곳 등 총 44개 도서에서 소사나무가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신안 소사나무 군락 전체 면적은 274ha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우이도가 소사나무 면적이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도서에서는 중요한 생태적 가치가 있는 곰솔·소사나무, 소사나무·졸참나무 군락도 확인됐다.

이번 보고회에서는 이 같은 연구 결과물들을 통



신안 우이도 소사나무 군락지.

해 유·무인도에 대한 소사나무 분포와 생태적 특성을 상세히 분석하고, 군락 보전과 관리 방향에 대한 비전과 목표, 전략 수립을 제시했다.

우이도를 '소사나무 명품 숲'으로 조성하고 생태 보전과 관리 방안 등이 구체화되면 관광자원의 활용 기대감도 높였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이번 소사나무 연구가 신안군의 고유한 생태 자원을 보전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전국 최대 소사나무 군락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해남군, 호우 피해 복구비 국비 50억2900만원 확보

해남군이 지난 9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비로 국비 50억2900만원을 확보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9월 29일부터 중앙합동조사단과 군 공무원들이 피해 현지 조사를 한 결과 해남군 총피해액은 49억3200만원으로 이에 대한 복구비로 86억 2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군은 계곡면과 황산면, 산이면, 화원면 등 4개 면이 특별재난지역에 지정됨에 따라 국비 4억 8천만원을 추가 확보하게 됐다.

군은 이번에 확보한 국비와 함께 도비 13억 5200만원, 군비 22억4700만원을 투입해 신속히 복구할 계획이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대한민국 판매 1위 펌프 윌로펌프

강력한 성능! 합리적 가격!
농사용 펌프도 역시 윌로펌프

전국 132개 서비스망